유관순과 함께 춤을

Worship with the Little Girl

Dreamy School

이것은 병천 소년소녀들의 찬양입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데헤이 에헤이 데헤이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소녀의 자리

오 영 원

† 오영원

유관순의 자리는 어디인가?

당신은 유관순을 그저 만세운동의 선두주자, 대한민국의 독립열사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녀의 자리>는 만세운동 이후 집으로 돌아와 일본군에 잡혀가기까지, 한 가정의 소중한 딸이자 누나인 유관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영원

소녀의 자리

1. 수레를 타고

결국 나는 사촌동생인 너를 이기지 못했다. 4월인데도 하늘은 네 눈빛처럼 차가웠다.

“오빠, 집에 데려다줘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꺼낸 말이었다. 깨물린 네 아랫 입술은 점점 하얗게 변했다.

너는 어디선가 풀가지들을 가져와 수레에 실었다. 매번 가지고 다니던 바구니와 낫도 풀더미 속으로 밀어넣었다.

“지금부터 출발하면 날 밝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짙은 새벽, 어두컴컴한 중에도 너는 바구니에 있던 종이들이 풀더미 밖으로 비죽 튀어나온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빼냈다. 허벅지에 받치고 주름을 펴는데, 종이 위에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 접힌 자국에 색이 바랜

종이는 마구 구겨져 있었다. 옆에서 같이 풀을 옮기던 애득이가 말했다.
“병참에 간 날 이후로 헌병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 집에는 일단 계획대로 이동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제 일 하라고 해. 난 가서 태극기를 더 나누어주던지 동생들 데리고 오던지 무언가 해야겠어.”
“걔들은 마리아 언니네 집에 있어. 할아버지도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가야하는 거야. 마지막이더라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풀가지 사이에 있던 종이는 안개에 젖어 축 처졌다. 얼룩덜룩해진 종이 태극기를 보니 지난 장날이 떠올랐다.

아우내 거리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빈손으로 만세 거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독립을 외치는 그들 손에 쥐어줄 태극기가 없어 교회 사람들은 막막해하고 있었다.

그 때, “여러분! 모두 태극기 받아가세요!”
밤중에 친구들과 모여 무언가 준비한다더니, 종이로 태극기 삼천 장을 만들고 있을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마을 사람들,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상인들 모두 태극기를 받고 행렬에 합류했다. 아우내 장터에서 가장 빛나는 태극기였다.

“빨리 출발해요.”

잠시 추억하는 동안 수레에는 어느새 풀더미가 가득 쌓였고, 너는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아있었다. 처음에는 너를 데려다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너를 이기지 못했다. 풀가지들을 덮다가 마주친 네 눈을 나

는 잊지 못할 것만 같다.

***

짙은 안개가 모습을 가리는데도, 수레를 끄는 남자는 어딘가 불안한지 계속 주위를 돌아봤다. 새는 위에서 산만하게 날아다니며 경고음처럼 울어댔다. 앞으로 나아가야만 보이는 앞길이라, 저멀리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수레를 따라 휘청거렸다. 수레는 나무뿌리와 돌을 밟으며 흔들거리다가 큰 돌부리를 넘지 못하고 섰다. 그는 서둘러 손잡이를 내려놓고 허리를 숙였다. 어둑어둑해서 잘 안 보이는지 미간을 찌뿌리며 바닥을 더듬거렸다. 그 때, 풀더미 속에서 얼굴 하나가 튀어나왔다.

“다 왔어요?”

한 소녀가 얼굴을 흔들며 그를 내려다봤다. 땀을 흘렸는지 얼굴에 머리카락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풀더미 안에서 습한 공기가 느껴졌다.

“아직. 다시 들어가라.”

그는 다시 손잡이를 잡고 더욱 속력을 내서 달렸다.

마을과 가까운 길목에 들어서자 수레에서 풀가지들이 팍 튀어올랐다. 풀 속에 있던 소녀가 뛰어내리는 바람에 수레가 크게 덜컹거렸다.

“아윽.”

그녀는 옆꾸리를 잡고 휘청거렸다. 그가 황당한 얼굴로 뒤돌아보자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바구니와 낫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종이 태극기 하나를 접어 자기 저고리 안에 넣고, 그에게 나머지를 건네며 말했다.

“이것들 좀 대신 나눠주세요. 나는 집 가서 또 그리면 되니까.”

2. 담 너머

소녀가 밟고 지나가는 곳위로 떨어진 꽃잎이 뛰어올랐다. 안개 속 벚꽃잎은 마치 눈같아서, 퍼런 새벽하늘과 잘 어울렸다. 꽃잎들은 소녀를 막기 위해 나무에서 뛰어내렸으나, 그녀와 겨우 스칠 뿐이었다.

소녀가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들고있던 바구니와 낫이 땅에 떨어졌다.

"이놈의 게 다 뭐냐…"

마당에는 나무 자재와 못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마당과 마루바닥에는 낯선 발자국이 천지였다. 누구 하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문 앞에는 나무 판자가 박혀 있었다. 꽃이 다 떨어져가는 벚나무에 앉아있던 새는 소녀를 가득 덮은 암울함을 보고 하늘을 향해 대신 소리쳤다.

소녀는 사랑방 문 앞에 섰다. 얼마나 깊숙히 못 박았는지 나무 판자에 망치자국들이 선명했다. 판자를 단단히 잡아 당기는 소녀의 얼굴이 금새 빨개졌다.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씩 벌어지던 판자는 이내 팍하고 뜯겼다. 당기면서 몸을 기울이던 소녀는 뒤로 나자빠졌다. 옆구리가 아픈지 끙끙대며 옷 속을 확인해보니, 무언가에 찔린 상처가 터져있었다. 소녀는 피를 막으려고 덧댈 것을 찾다가 매고 있던 하얀 천허리띠를 둘러 묶었다. 떨어진 파편들을 발로 차려다가, 옆구리 고통에 한동안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녀는 부엌과 창고, 다른 방들의 판자들도 모두 뗐다. 쩌적쩌적거리는 소리에 담 너머로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샀다. 그들은 목을 주욱 빼서 한번씩 훑어보거나 혀를 차며 지나갔다.

사랑방 문을 열자 소녀는 한숨부터 내쉬었다. 벽지는 뜯기고, 종이와 서책들이 마구잡이로 나뒹굴었다. 화분도 깨져 흙이 흩뿌려져 있고, 장농 이불과 베개도 엉망으로 널려있었다. 그녀는 책들을 상 위에 쌓고, 떨어진 붓들을 벼루에 일렬로 눕혔다. 그런 다음 서랍장에서 거울과 빗을 꺼내 머리를 정돈했다. 뜯겨서 헤진 경첩에 끼익거리는 문들과 선선한 바람에 나뭇잎들이 부딪혔다.

소녀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서 부엌에 갔다. 너덜거리는 문을 여니 파리 한마리가 이마를 찍고 달아났다. 잠시 찌뿌린 미간은 꿉꿉한 부엌 냄새 때문에 더욱 구겨졌다. 냄새의 원인을 찾으러 여기저기 살피던 그녀는 솥뚜껑을 열더니 재빨리 코를 틀어막았다. 시커먼 솥에 남은 두부와 팽이버섯, 호박 건더기. 몇번 우리고 시간이 지나 진한 황갈색 된장국이었다. 그 위로 물방울이 투둑 떨어졌다.

소녀는 걸레 하나를 들고 집 앞 도랑으로 향했다. 퍼런 하늘이 돌 위로 불룩거리는 물결따라서 일렁였다. 수면 위에 비친 얼굴은 튀어오르는 물방울에 흔들거렸다. 소녀는 쭈그리고 앉아 소매를 걷어붙이고, 천에 철벙철벙 물을 적셨다. 움직이는 팔때문에 안주머니 밖으로 튀어나온 종이는 얼마못가 도랑물에 빠져 흘러갔다.

“어어…”

소녀는 종이를 쫓아가 황급히 꺼냈다. 종이를 펼치려는데 모서리가 미역줄기처럼 죽 찢겨나갔다. 그러나 태극문양과 사괘는 번진 먹 때문에 제 모습을 잃어버리고, 걸레처럼 되어버린 태극기는 소생불가였다.

“...다시 그려야겠다.”

콧망울에서 볼로 분홍빛이 퍼지고, 그 위로 작은 물갈래가 났다. 소녀는

자기가 그린 태극기를 꼭 쥔 채, 어깨를 한동안 들썩였다.

***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아침이라 마음이 괜히 쓰렸다. 그 쓰라림은 다가올 것에 대한 암시였나,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저기 담 너머로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오만상을 찌푸린 그 남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문을 발로 찼다. 맞은 충격에 못이 튕겨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은 비스듬히 쓰러지더니 마루바닥 위로 떨어졌다.

"다 누가 떼놓은 거야? 귀찮게. 또 박아야 되겠네."

그는 항상 이 시간대가 되면 근처 부근을 돌아다녔다. 빠른 걸음으로 앞을 지나는데, 그는 나를 보더니 성큼성큼 다가왔다. "요 근래 이 집 딸을 본 적 있습니까? 누가 여길 왔다 갔는지 아십니까?"

고개만 내저을 수 밖에 없었다. 담 너머로 보이는 집은 삭막하고, 그 남자로 인해 더욱 음침해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문이 나무 판자로 막혀있었다. 누가 다 뜯어놓았는지 마당에는 비죽비죽 못박힌 판때기들이 수북했다.

남자는 황토색 군복바지에 두 손을 찔러넣고는 한쪽 눈썹을 치켜들었다.

"누군지 알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는 팔자걸음으로 어슬렁거리며 집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뒤를 돌아보는데, 순간 내 눈이 침침한 것인가, 저 멀리서 천을 털며 걸어오는 네가 보였다. 눈 주위에 경련이 멈추지 않아 계속 비벼도 보고 때려보기까지 했다.

제발 돌아오지 않길 빌었는데. 다시 만나면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네가 돌아왔다.
“여, 여기 있으면 안 돼...너 왜 돌아왔어?”
너는 내게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당연한 말을 했다.
“내가 내 집에 있어야죠.”
“안 돼. 지금이라도 얼른 떠나. 너 이번에는 진짜 잡혀 가.”
“나 안 가요.”
“방금 누가 다녀갔는지 알아? 너 잡겠다고 매일 여기 출석 찍는다고, 헌병놈들이…”

아무도 꺾지 못하는 네 고집이 꺾었으면 했는데, 너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흔들리지 않은 눈빛이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였는데 나도 죽으면 그만이지 뭐. 생명 구구하게 살려고 피신 다닐 필요가 뭐예요.”

***

올 테면 와라.
소녀는 저 멀리 어둑어둑한 논밭을 보며 눈을 찡그렸다. 허리춤에 손을 짚다가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눌렀나보다. 치마에 핏자국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녀는 마루바닥을 다시 상처를 확인하려다 그녀의 안주머니 밖으로 태극기가 비죽 튀어나왔다. 마루에 앉아 구겨진 태극기를 다시 접으려는데,
“너, 잘 왔다!”
어떤 노인이 담 너머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그녀를 불렀다. 낮은 키 때문에 고개에 무리가 가시는지 한 손을 뒷목에 받혔다.
“어쩔거야. 우리 아들, 네가 벌인 그 만세 때문에 나가서 총에 맞았다! 비

틀비틀 들어와서는 얼마 못 갔다.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왜 내 새끼가 죽어야 했냐고오! 아이고! 죄없는 내새끼. 아이고오.”

“...”

그는 그녀가 들고 있는 태극기를 보고는 더욱 혈기를 부렸다. 그는 대문을 열고 마당에 서서 호통을 셨다.

“시퍼렇게 어려서, 조신하게 있으면 좋았을 거 아니야. 만세하고 난 결과가 이거였냐! 그런다고 나라가 한순간에 바뀐다냐.”

노인의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나 둘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노인은 그녀에게 더 거칠게 굴었다. 그녀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먹으며 울분을 참는 듯 했다.

“끝까지 도망가지 그랬냐!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간 거... 여기 왜 돌아왔어!”

노인은 목을 긁어 집 안으로 가래침을 뱉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노인의 팔을 둘러 잡고 그를 달랬다.

“에구… 아버님, 이른 아침부터 역정내지 마세요. 병해 놈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3. 지나간 자리

소녀는 자신의 아버지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뱉었다. 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콧바람을 색색 내더니 그녀는 곧 바닥에 엎드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하듯 한참 소리를 지르다가, 조곤거리며 자세를 고쳐 무릎을 꿇었다. 꽉 쥔 두 손은 손마디가 하얘지고, 얼굴에는 눈물은 물론 콧물이 턱을 타고 흘렀다. 목은 갈라져서 마

치 고라니가 우는 듯 굵은 소리가 났고, 소리내기 답답한지 기침이 나왔다. 사랑채는 통성과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

어렸을 때, 아버지는 방에서 하루종일 나오지 않으시고 무언갈 중얼거리곤 하셨다. 창호지를 뚫어 몰래 들여다보면,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옆모습이 보였다. 구멍으로 새어들어가는 바람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늘 알아채시고,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를 부르셨다.

“관순아.”

나는 구멍난 것을 빠르게 메우고 조심히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아버지 옆으로 가서 똑같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눈만 꾹 감고 어떻게 기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아버지의 흐느낌에 눈을 뜨면, 벽에 걸린 나무 십자가에 시선이 사로잡혀 한참을 바라봤다. 그 오묘한 끌림에 빠져 아버지의 기도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 때는 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언제 나오시려나 하고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 캄캄한 밤이 되어서 밖으로 나오시는 아버지께 어느날 물었다.

“아버지, 어떻게 길게 기도해요?”

아버지는나란히 옆에 앉으시고 웃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길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선은 마음이지.”

아버지는 참으로 마음을 다하셨다. 만세 운동에 목숨을 다하셨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 뜻이 많은 이를 동요시켰다. 그렇게 친척들은 물론이고, 교회 사람들, 아우내 동네가 온 힘을 다해 독립을 외쳤던 장날을 잊을 수 없

다. 그 모든 일의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다.
어느새 아버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었고, 아버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었다. 매봉산에 올라가 봉화를 올리던 날, 불타는 횃불을 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사랑을 가르쳐주신 분의 걸음 한 치라도 제대로 따르리라고.

***

소녀는 머리 한올도 남김없이 바짝 묶어 올리고, 양반다리를 한 채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사랑방 문이며 온 집안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 4월의 선산한 바람이 여기저기를 훑으며 날아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로 엮은 대문은 모래바닥을 쓸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황토색 군복을 입은 남자들의 가죽 구두가 자박자박거렸다. 그들은 소녀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유가 관순.”
한 남자는 그녀의 안주머니에서 비죽 튀어나온 종이를 홱 뺏었다. 그리고 펼쳐보더니 피식 비웃었다.
소녀는 그를 쏘아보았다. 두 남자는 소녀의 양 팔을 둘렀다. 마당을 나서는 그들을 보내며 대문은 바람 따라 제 몸을 흔들었다.
세 사람은 도랑길을 지나갔다. 소녀는 갑자기 몸에 힘을 주고 멈춰섰다.
“...동생들이 있는데, 올케언니 집에 있어요. 한번만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두 남자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소녀의 팔을 놓아주었다. 그리고 다섯 발자국 뒤에서 그녀를 따라갔다.

야속하게도 올케 언니집으로 향하는 길 위로 하늘은 화창하고 참 따뜻했다. 소녀는 어떤 집에 멈춰 서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대문 앞에서 한참

머뭇거리던 소녀는 밝은 미소를 띠며 대문을 열었다.
“인석아, 관복아 -.”
“누나다!”
“누나!”
소녀의 부름에 어린 남자 아이 둘이 달려나왔다. 마당에서 빨래감에 풀을 두들기던 여자도 소녀를 반겼다. 두 동생은 뒤따라 들어오는 성인 남자 둘을 보고 겁에 질려 제 누나 뒤로 숨었다. 그 중 한 남자가 다듬잇방망이를 든 여자에게 말했다.
“조금 물어볼 말이 있어서 병참까지 데려갈테니까, 이따 점심 해 놨다가 주세요.”
여자는 고개를 빠르게 끄덕거렸다.
두 동생은 제 누나가 간다는 소리에 닭똥같은 눈물을 흘렸다.
“거짓말, 거짓말이잖아요.”
소녀의 코가 빨갛게 물들었다. 남동생들이 소녀를 안고 놓아주질 않자, 기다리고 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관복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너희 누나 저기 가서 몇 가지 물어보고 금방 올 테니까 누나 먹을 거나 해놓았다가 줘라.”
소녀는 올케 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형님, 안녕히 계셔. 내 다녀올게.”

지령리 마을로부터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숲을 타고 메아리치는 듯 했다. 소녀는 마음 속으로 외쳤다.
“아아, 하나님이시여,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제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2021년 11월 15일 류제웅 선생님과의 만남〉

같은 병천 하늘 아래에서...

1919년 4월의 함성과 총성은 온데 간데 없고, 벌써 백년을 훌쩍 넘어 2021년 가을, 병천의 장 날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만세소리 외쳤던 아우내 장터 자리는 인적 드문 공원이 되어 가끔씩 오가는 사람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네요.

1년 전 어느 날, 천안 삼거리 어느 건물에 그려진 유관순 캐릭터를 보고 시작했던 '유관순과 함께' 시리즈 수업은 이 한권의 소설과 이후에 완성 될 세 권의 그림책으로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무렵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차츰 만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은 사애리시 선교사님입니다. 그렇게 유관순 열사의 부모형제와 가까운 친척들, 친구들을 통해 소녀 유관순, 신앙인 유관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는 유열사의 두려움을 상상해보았으며, 암흑 같던 당시에 소망을 잃지 않는 유관순을 상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편의 소설을 지었습니다.

저희의 상상에 큰 줄기를 먼저 그려주신 서만철 교수님과 류제웅 선생님, 류효상 천안 쌍용지구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도서를 통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품었던 유관순 열사의 뜻이 같은 병천 하늘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달되기 바랍니다.

〈유관순과 함께 춤을〉 지도교사 윤창권